

여성불자 조직·신행 확대 모색



진흙속에 피는 연꽃①

조계종 내달 26·27일 봉은사서 워크숍 해주스님등 강연...사회문제 참여 논의

"여성불자여, 눈을 뜨자!" 세상의 절반인 여성, 교계의 절반이 넘는 여성불자들을 위한 만남과 교류의 장이 교계 최초로 종단 주도로 펼쳐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령)이 21일을 앞두고 '여성불자의 새로운 흐름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6월 26~27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연다.

포교원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세례의 교계 여성불자 예비모임을 하고, 보다 많은 여성불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한다. 그동안 각분야에서 활동해 온 여성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함으로써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 신행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여성불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계불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불자 조직을 위한 만남의 장이 펼쳐진다. 사진은 연등축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

이번 워크숍의 실무자인 한주영 씨(조계종 중앙총회 포교원과 간사)는 "여성들이 사찰과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고자 워크숍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워크숍을 통해 여성불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교가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 종단에서 일하는 여성종무원, 교계 직장여성, 불교단체 여성활동가, 여성문제에 관심있는 불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이 '불교 입장에서 본 여성·여성운동'에 대해, 정미숙씨(경원대 여성학 강사)가 '페미니즘의 최근 경향'에 대해 강의한다. 또 신미숙씨(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간사)가 '사회 여성운동에 대한 소개'를 발제하며, 조혜란씨(경희대 여성학 강사)가 '불교 여성 단체 조직의 의의'를 발제한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증대되고, 정부에서도 여성발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변함없는 연꽃과 같이 본래 깨끗한 자기 자신을 혼탁함에 물들이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남편과 나는 웃음을 가다듬고 108배를 시작했다. 이전 108배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서인지 속스러움이나 머슴함없이 편안하다.

예전의 난 오늘과 같이 안정된 삶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남들도 그렇겠지만 고통의 나날이다 싶을 정도로 험겨운 삶은 날을 보냈다. 지금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나를 제도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며 공부하게 만드셨던 것 같다.

결혼 한지 불과 2년 만에 남편이 직장에 사표를 내게 되었고, 어린 친정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을 때, 때론 막일도 마다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던 남편은 대학선배가 알선해 준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하는 기대도 잠시 친정어머니가 집을 팔아 마포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또 다시 우리 가정엔 소용돌이가 일었다.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친정어머니를 따라 이사한 게 화근이었다. 시집 식구들은 별 관심이 없었지만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며 나를 힘들게 했다. 7남매 중에 막내로 형들이나 누나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남편도 친정에서 사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불편해 했다.

급기야 남편은 매일 저녁 12시가 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신경을 곤두세울 대로 세우 조그만 일에도 싸움 기세였다. 결국 6개월만에 친정 집에서 나와 잠실로 이사를 했다. 못한 자식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싶어 나는 일주일을 울면서 보냈다. 그런 내 모습이 측은했던지 남편은 "미안하다. 그동안 잘못이 많다"며 사과를 하였다.

그 후 남편은 장사를 시작했다. 좀더 좋은 단칸방에 옷장도 없이 TV와 서랍장만 놓고 살면서 가게 일에 매달려 살았다. 친정어머니는 오셨다가 울면서 나가시고 주위에 아는 분들도 안타까워 하셨을 정도로 험겨운 생활이었다. 남편도 겉으로야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창피했던지 친구들이 집에 오려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 못 오게 하곤 하였다.

그래도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고 장사에도 재미가 붙었다. 근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고 말았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남편이 다른 데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사서류를 빼고 있다는 이유였다. 남편 부하직원의 모함으로 남편은 어이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버렸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내가 하는 장사에 전

화를 한데 더 놓고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분하고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던지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못 이루더니 남편은 오히려 나에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며 용기를 주었다.

마음이 고달팠던 나는 불경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절 집 분위기가 낯설기만 했던 나는 법당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며 우리 가족 화목하게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맘을 뽀뽀 흘리며 가족의 화목을 소원했던 내 기도가 가족들에게 전해졌는지 남편과 아이들이 별 거부감 없이 매일 초하루 나를 따라 불경사에 다녔다. 나중에는 가족 모두가 아침 일찍 깨우기도 전에 일어나 씻고 깨끗하게 차려입고는 절로 향하였다. 물론 가게 일과 남편 사업도 잠시 쉬었다.

남편의 실직과 가게의 어려움으로 많은 번민



그림 · 문병성

남편의 실직과 가게 어려움으로 많은 번민에 싸여있던 나에게 부처님은 든든한 울타리로...

많은 번민에 싸여있던 나에게 부처님은 든든한 울타리며 상담자가 되어 주셨다.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부처님은 알아주실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의 일을 보살펴 주실 것 같았다.

아이들도 착하게 잘 키우었고, 자기를 나름대로 소원을 빌며 신행생활을 해 나갔다. 나 또한 가게 일은 일대로 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제대로 다리를 펴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고달팠던 하루를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것도 잠시. 난 남편으로부터 받는 질서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느껴야 했고 서서히 지쳐갔다.

남편을 돕는다고 돕는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동안 해 본 일도 아니고 해서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데도 그 때마다 남편은 험한 말로 나를 못살게 굴었다. 심지어는 한 두달씩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하기 일쑤였다. 몸이 피곤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정신적으로 미쳐 버릴 지경이었다.

강경아(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청소년 단신

불교 청소년문학상 공모 시·소설등 10월20일까지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는 청소년 문학포교의 일환으로 제4회 한국불교청소년문학상을 현상공모한다.

자비실천의 미래지향적인 내용,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시·시조·단편소설·희곡·시나리오·체험수기 등을 모집한다. (02)425-3002

어린이 맑은소리 발표회 합지골 청소년수련원

합지골청소년 수련원은 부산시대 초등학생을 위한 제10회 합지골 열린음악회 '어린이 맑은소리발표회'를 6월 5일 수련원 강당에서 갖는다. (051)405-5223

진주파라미타 창립 1돌 청소년 문화축제 열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진주 지회(지회장 구영석)는 2일 오후 1시~6시 진주시 대안동 차있는 거리에서 5백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었다.

인문부 명성여고 관음상 봉안 주역 김영희·이미자 보살

"학생들, 관음보살 가피 입어 자비롭고 지혜롭게 자랐으면..."

17일 오전 11시 불교종립 명성여자고등학교(교장 우하수) 교정에는 종림학교 최초로 관세음보살성상이 봉안됐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이 조성불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명성여고 불자어머니모임 수심회 김영희씨(98년 회장)와 이미자씨(99년 회장)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의 딸들이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을 따라 자비롭고 지혜롭게 자라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어머니는 "불교종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내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성상을 전혀 접할 수 없는데에 안타까움을 느끼다가 여러 어머니들이 뜻을 모



△명성여고 교정에 마련한 선 김영희씨(오른쪽)와 이미자씨.

아서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음성상은 높이 2m의 청동으로 제작됐으며, 2천5백만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수심회 2백여 회원과 명성여고 동창회원, 교직원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

두 어머니는 "앞으로도 종림학교의 면모를 다질 수 있도록 법당을 정비하고,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래불교의 여성인재 양성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침체된 어린이법회에 활력을...

대불어·한불어 6월 지도자연수회

경제불황 등으로 침체된 어린이법회를 활성화하고, 21세기 한국불교의 기둥이 될 새싹불자 양성을 함께 연구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덕진)가 '슬기로운 어린이, 활기찬 미래불교'라는 주제로 6월 5일~6일 경주온천관광호텔에서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실시한다. 여름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연수회에서는 제

여성 생활정보

자녀교육 위한 부모학교

서울 강북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자녀교육과 정립을 위한 부모학교'를 개최한다. 참가비 무료. (02)732-5560

여성 가장 직업훈련

강북 일하는 여성의 집은 텔레케뮤니케이션, 컴퓨터 오피세터, 제과제빵사 과정 등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과정' 4개 프로그램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이루어지며 모집기간은 27일까지다. (02)980-2377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총명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로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막한 기운을 수 받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적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은 불려들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환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백개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밤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건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의 수백 차한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펼쳐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만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만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만다라니 처방비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